

왈러 연준 이사: 물가 둔화 신호 확인하면서도 8 월 지표 강하면 9 월 인상 가능성 열어둬

2026.09.03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9 월 15~16 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 (Fed)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이사회 소속으로 투표권을 가진 왈러 이사가 나섰다. 앞서 바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고착 위험에 대응해 "단호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콜린스 총재는 노동시장 여건과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면서도 과거 5 년간의 과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관망을 유지했다. 왈러 이사의 이번 발언은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성격이 짙다.

왈러 이사는 최근 데이터에서 드디어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8 월 지표가 강하게 나올 경우 9 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성장과 고용시장이 견고한 만큼, 이번 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 경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7 월 전월 대비 물가는 0.2%로 개선됐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실제 거래가 없는 서비스 항목에 추정치를 적용한 가격 (코어 물가의 절반 가량 비중)을 제외하면, 밑바탕에 흐르는 물가 흐름은 근원 지표보다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긴축이 불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왈러 이사는 이사회 소속 투표권자인 만큼 이번 발언의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물가 개선 신호를 함께 제시한 점에서, 최근 시장의 9 월 인상 기대가 한 단계 더 높아진 흐름에 대해 속도 조절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조건부 표현 ("8 월 데이터에 따라")을 유지한 만큼, 인상 기대를 되돌리는 결정적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8 월 고용·물가지표 발표와 9 월 15~16 일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남은 위원들의 추가 발언이 관전 포인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실제 인상이 이뤄질지, 아니면 데이터 확인을 이유로 동결될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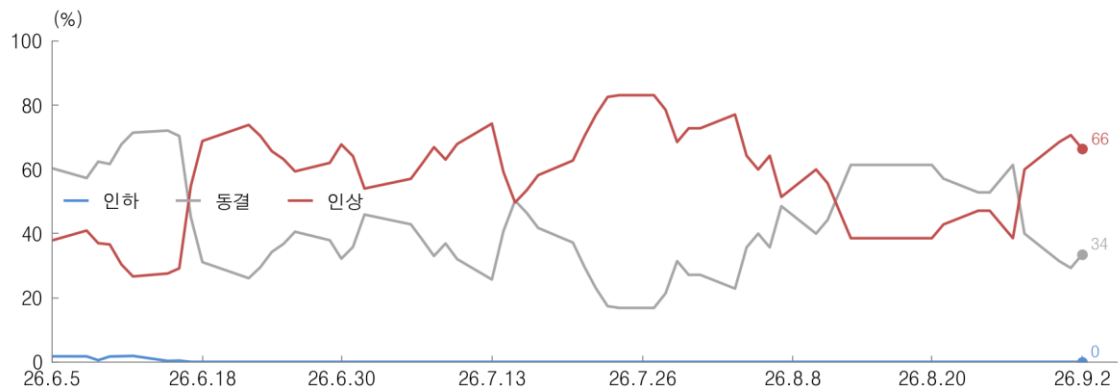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3 (이번)	Waller 는 7 월 디인플레이션 신호를 토대로 9 월 인상 가능성을 조건부로 열어두면서, 기저 인플레이션 개선으로 과도한 긴축이 불필요함을 시사했다.
2026-09-01	Barr 는 인플레이션 고착 위험을 근거로 9 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단호하게 인상할 필요성을 명시하여 시장의 인상 기대감을 강화했다.
2026-08-28	Warsh 는 AI 의 역사적 중요성으로 현 자산 가격을 정당화하되 정책과 무관함을 명시하여, Fed 의 상대적 여유와 글로벌 통화정책 비동기화를 강화할 신호를 보냈다.
2026-08-25	Collins 는 현 금리의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5 년간의 과다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유지하여, 9 월 결정을 데이터 확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입장을 드러냈다.

왈러 연준 이사 발언: 조건부 물가 지표 의존적 인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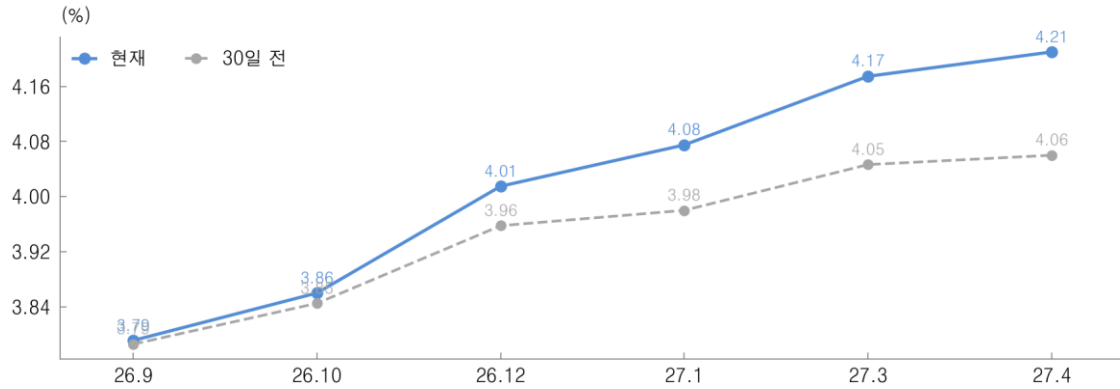
주제	왈러 이사의 입장	근거/수치	시사점
물가 경로	최근 데이터서 디인플레이션 신호 확인	PCE 3.7% → 근원 3.3% → 월간 0.2%	과도한 긴축 불필요 신호
9 월 금리 결정	8 월 지표 강하면 인상도 가능(배제 안함)	조건부 표현 유지	인상 기대 속도 조절
경제 기초여건	성장·고용시장 견고	직접 언급 없음	정책 초점은 인플레이션
기저 인플레이션	비시장 서비스 제외하면 양호	코어의 약 50% 비중 항목	기저 흐름이 표면보다 개선
발언자 입장	균형잡힌 신중함 + 조건부 강경	투표권 보유 이사 발언	인상 기대 과열에 제동

차기 FOMC(9 월 16 일) 정책금리 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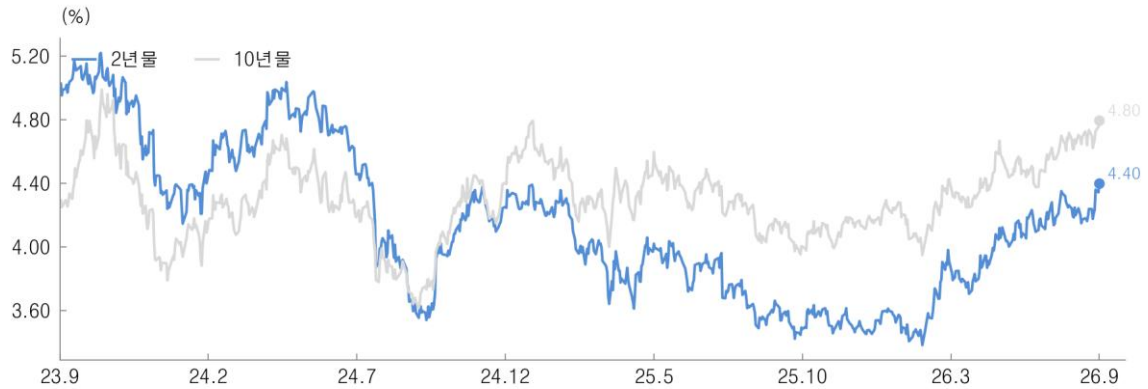
자료: 하우스 FedWatch(연방기금선물 자체산출·CME 백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FOMC 회의별 내재 정책금리 — 현재 vs 30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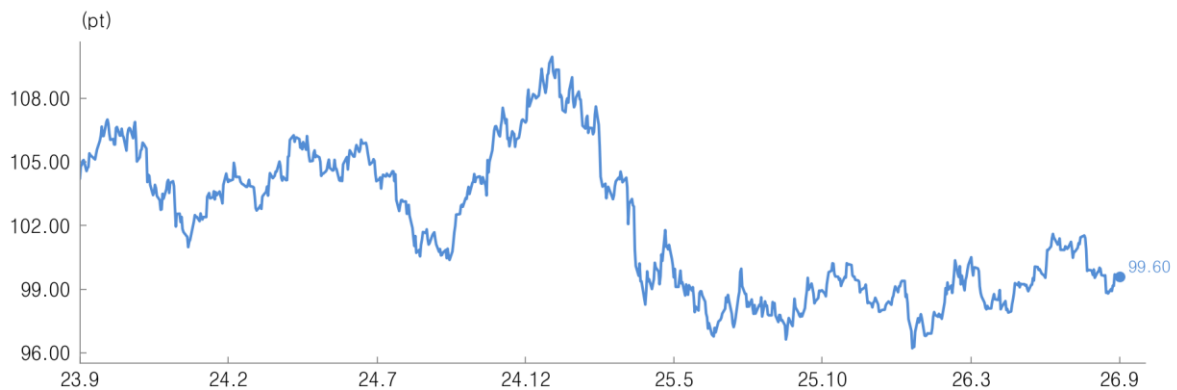
자료: 하우스 FedWatch(연방기금선물 자체산출·CME 백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